

#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국내 주식·외환·국채시장 영향 점검 강화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부내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콜 실시
- 국내 금융·외환시장 부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 지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4.3(목) 18:10, 美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美 현지시간 4.2일)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금일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소폭 하락(△0.76%)에 그쳤다. 외환시장은 장 초반 소폭 상승(+0.4%)했으나,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0.0%)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코스피 지수 (전일비(%)) : 2,486.7(△0.76), 원/달러 환율 (전일비(%)) : 1,467.0(+0.0%)  
국고채 금리 변화폭(bp, 전일비) : (3년물)△5.5 (10년물)△2.9

김범석 차관은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임흥기 (044-215-2750)
		담당자	서기관 김수현 (minejk34@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김용준 (kimyj1011@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gayoung0816@korea.kr)